

지구경제 시대의 한국 회계학 교육과 실무*

최영찬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 회계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1990년대 초반의 소련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사회구조적 변화는 지구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더욱 가중시켜 주고 있다. 한 국가의 교육체제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이와 같은 모든 방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례에 없던 지구경제의 변화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회계실무상의 상이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구경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통된 회계언어의 결핍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국 회계학계는 회계학 교육의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회계학교육자, 회계실무자, 회계학과 학생, 그리고 미국 회계학교육 변화추진위원회(Accounting Education Change Commission) 활동 등에 의해서 미국 회계학 프로그램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주축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기술위주 교육에서 보다 넓은 광의의 회계학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대학의 학생들은 물론 교수 및 행정담당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Ernst & Young, 1992).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의 한 연구는 한국 회계학교육에 대해 반대 방

* 이 글은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의 회계학과 최영찬 교수가 한국의 회계학과 교육이 국제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 "대학교육"지에 투고한 것이다.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회계교육체계가 회계교육의 국제적 움직임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계학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진국 중, 특히 미국과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회계학 교과과정을 우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명제(research questions)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회계학교육 및 실무에 관한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미국의 현 회계학교육 및 실무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 한국의 현 회계학교육 및 실무의 발전, 교과과정의 통계적 비교분석과 아울러 교수진, 회계관련기구, 그리고 회계의 문화적 차이점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겠다.

2. 문헌연구 및 연구명제

한국의 회계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들 중 한 연구(이동수, 1989)는 한국의 회계교과과정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회계학과 교과과정과 비교 연구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일반교양과목 비율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일리노이 대학의 29%보다 높은 32%¹⁾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적 회계과목들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한 학교(University of Illinois) 교과과정이 전 미국의 대학 교과과정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협한 주장일 뿐 아니라, 현 미국의 회계학교육 변화 추진위원회의 기존 기술적 회계학교육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기본교육으로의 변화’ 제안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AAA Bedford Committee, 1986). 그러므로 이 글의 첫째 연구명제는 위의 문제주장의 정당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연구(남상오, 1990)는 한국 회계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지²⁾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 설문지 연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 즉 회계학과 전공필수 총학점수와 회계분야별 학점수 분포가 이 글의 또 다른 연구명제가 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89년 12월 2일의 한국회계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교수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140학점 중 전공필수 학점이 30학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회계학을 세분하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및 회계정보시스템분야 등의 5개로 구분하며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무회계분야 40%, 원가관리회계분야 20%, 회계감사분야 10%, 세무회계분야 10%, 회계정보시스템분야 10%, 기타 10%로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두번째 명제는 미국과 한국의 회계학 분야별 비중이 같은지를 실증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앞의 두 가지 회계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명제를 중심으로 그밖의 중요한 요소들, 즉 교수진, 회계관련기구, 회계의 문화적 요소 등도 뒤의 통계분석에서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미국 및 한국의 회계학교육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나라의 회계학교육 및 실무

1) 이 수치는 의문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1977년 7월 2일자 개정된 한국의 교육법 시행령 119조 3항에 의하면, 대학의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정기준은 전체 과목 학점의 30퍼센트로 한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입수된 35개 대학의 실증적 자료는 졸업소요학점 140학점과 그의 30% 미만을 반영하고 있다.

2) 저자에 의하면, 이 설문조사는 1989년의 회계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99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표 1〉 THE ROY AND MACNEILL REPORT

Common Body of Knowledge(공통지식체제)

- The Humanities(인문)
- Economics(경제)
- Behavioral Sciences(행동과학)
- Law(법)
- Mathematics, Statistics, and Probability
(수학, 통계, 확률)
- The Functional Fields of Business
(상경제열분야)
 - Finance(재무)
 - Production(생산)
 - Marketing(마케팅)
 - Personnel Relations(인사관계)
 - Business Management(기업경영)
 - Accounting(회계)

의 발달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미국 회계학교육과 실무의 발달

1963년 미국 공인회계사들을 위한 공통지식체제(common body of knowledge)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와 뉴욕의 카네기 회사(Carnegie Corporation)가 공동으로 협찬한 Roy and MacNeill Study(Roy and MacNeill, 1967)에서 미국 회계학교육의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 1967년에 새 공인회계사들을 위한 공통지식체제(Common Body of Knowledge)와, 회계학교육의 연차적인 개발을 위한 기초를 추천하는 연구서 *Horizon for a Profession*의 발

간에 이르게 됐다. 그들의 추천은 회계과목, 인문과목, 경제과목, 행동과학과목, 법률과목, 통계학과목, 확률과목 및 상업분야별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1969년 회계학 교과과정 입안자들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교육 및 실무경험 요구위원회(Beamer Report로 통칭됨)가 상기 연구서의 결론을 재고한 뒤, 협회 행정위원회에 공인회계사의 교육 및 실무경험을 협회의 기본방침으로 할 것을 추천했다.

동 위원회는 일반교양과목, 일반상업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 및 학점수를 제시했다. 동 위원회는 두 가지 운영가능한 회계학과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했다. 하나는 5년제이며, 다른 하나는 4년제 프로그램이다. 60학점의 교양과목은 뒤의 〈표 2〉와 같이 두 프로그램에 모두 해당된다. 이 최소 수업연수 5년(약 150 학점 정도)의 학력 요구사항이 급기야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서 서기 2000년부터 그 실효를 보게 되는 것이다.³⁾

회계학교육 변화의 최근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⁴⁾는 교육자들로 하여금 회계학교육의 현 상태와 회계학 교과과정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해 보도록 근본수단을 제공해오고 있다. 1986년의 회계학교육의 미래적 구조, 내용 그리고 범위에 관한 위원회(Bedford Committee로도 통칭됨)의 “미래의

3) 1987년에 4개주가 5년제 150학점 법안을 채택했으나, 지난 1988년 83%의 미국공인회계사 회원들이 5년제 150학점 학력 법안을 지지한 이후 1993년 7월 현재 30개주가 이 5년제 150학점안을 채택했으며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자료 : AICPA State Legislation Department, July 22, 1993).

4) 미국회계학회는 1916년에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 in Accounting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36년에 현재의 이름이 채택됐다.

〈표 2〉 THE BEAMER REPORT
The Model Accounting Program
(회계학 모델 프로그램)

<u>General Education(일반교양)</u>	<u>학 점</u>	
Communication	6 - 9	
Behavioral Sciences	6	
Economics	6	
Elementary Accounting	3 - 6	
Introduction to Computer	2 - 3	
Mathematics	12	
Other General Education Courses	<u>25-18</u>	
Sub Total	60	
<u>General Business(상경제열)</u>	<u>5년제</u>	<u>4년제</u>
Economics	6	6
The Social Environment of Business	6	3
Business Law	6	4
Production	3	2
Marketing	3	2
Finance	6	4
Organization	9	6
Quantitative Techniques	9	6
Written Communication	3	2
Business Policy	<u>3</u>	<u>2</u>
Sub Total	54	38
<u>Accounting(회계학)</u>		
Financial	9	6
Cost	6	3
Tax	3	3
Auditing	6	3
Systems	<u>6</u>	<u>4</u>
Sub Total	30	19
<u>Electives(선택)</u>	<u>6</u>	<u>3</u>
TOTAL	<u>150</u>	<u>120</u>

시각팽창을 포함하는 일종의 급격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1989년 4월 미국회계사협회의 집행위원회는 회계학 교육의 변화를 이행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즉 회계학교육 변화추진위원회(Accounting Education Change Commission: AECC) 발족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AECC는 그의 임무 중에서 교과과정 변경을 이행하는 회계학 프로그램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결과를 이양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Mueller and Simmons, 1989).

미국 회계실무의 발달과정에서 회계가 전문직종으로 부상하게 된 전초적 요구조건은 사회경제적 성장이었다. 왜냐하면 회계는 혼란에서 질서를 창출해 내는 데 주력하는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896년 뉴욕 주를 시작으로 1899년에 펜실베니아, 1900년에 메릴랜드 그리고 다른 주의 순서로 공인회계사의 법적 인정이 주어졌다(Campbell, 1987). 물론 법률 계통이나 의학계통에서 처

회계학교육"이라는 마지막 보고서에서 서기 2000년까지 회계학교육의 대대적 체제 재개편을 주장했다. 즉, 회계학을 좁은 기술적 의미의 초점에서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개발 및 보급의 기능으로 보는 학생들의

럼 법제화 이전에 전문직업으로서의 훈련과정이 있었는데, 전문회계의 첫 훈련과정은 기본적으로 도제과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도제제도는 주로 상업학교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 첫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1881년 펜실베니아 대학에 설립되었으며, 1910년에 이르러서는 13개 학교, 1919년에는 48개 학교, 1955년부터 1956년 사이에는 163개 학교에 이르게 되었다(Roy et al., 1967). 1987년 현재 미국에는 주립대학, 일반대학 그리고 사립을 포함한 700개의 대학이 회계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angenderfer, 1987).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공중회계실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에 따라 관장된다. 각 주에 따라 공중회계실무 규정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모든 주의 회계위원회는 통일된 단일 공인회계사 시험과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채점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통일된 단일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실무, 회계이론, 회계감사 그리고 상법의 4부로 되어있다. 회계 전문가로서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유래는 1887년에 설립되었던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에는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란 이름이 채택됐으며, 1953년에 현재의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가 채택되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는 "정부기관에 조언을 제공하며 회원으로 가입된 공인회계사에게 기술적 지도문을 발간하기 위해서"라고 그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Kohler's Dictionary for Accountants, 1983).

4. 한국 회계학교육과 실무의 발달

한국에도 역시 도제제도 과정으로서 전문직

을 위한 훈련과정이 있었으며, 정규 대학수준 회계학 교육과정의 설립은 1905년에야 이루어졌다(이학열, 1989). 1989년 현재 약 82개의 정규대학이 상경계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국 4년제 대학의 70%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1976년 3월에 첫 회계학과가 창설되었으며, 1994년 현재 57개 대학이 독립된 회계학과를 설립하고 있다.

한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실시 감독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한국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법적 인준은 1966년에 이루어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는 면접시험으로 치른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로서의 기초 소양과 전문지식의 적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12967호(1990)에 명시된 과목과 분야를 포함한다.

5. 통계적 분석

1) 교과과정

단변수 점정 통계(univariate test statistics) 방법이 35개⁵⁾ 한국 대학과 134개⁶⁾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세 가지의 비율분석에 이용되었다. ① 일반교양 학점 비율(교양학점수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② 회계학과 학점 비율(총 회계학과 학점수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③ 회계학 분야별 학점 비율(회계학 분야별 학점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① 일반 교양학점 비율(교양학점수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한국 교육부는 30%의 일반 교양학점·비율

5) 35개 한국 표본학교의 자료는 각 학교요람(89~91년)에서 참조.

6) 미국의 표본학교 자료도 각 학교요람에서 얻어졌으며, 134개 대학 모두가 미국 AACSB 회원교이다.

(표 3) 일반교양 학점비율 단변수 검증 통계결과(일반교양 학점수/총 졸업소요 학점수)*

변수 Variable	Korean schools (n=35)		The U. S. Schools (n=134)		T statistics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t-value	p-value**
일반 교양	0.300 0.300	0.300 0.000	0.250 0.611	0.426 0.062	-23.6	0.0001**

* 일반교양 학점수가 총 졸업소요학점수로 나누어졌음.

** 일반적으로 p-value가 0.10 이하이면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표 4) 회계학과 학점비율 단변수 검증 통계결과(회계학과 학점수/총 졸업소요 학점수)*

변수 Variable	Korean schools (n=35)		The U. S. Schools (n=134)		T statistics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t-value	p-value**
회계 학과	0.129 0.321	0.204 0.046	0.121 0.322	0.208 0.037	0.502	0.6180

* 회계학과 학점수가 총 졸업소요학점수로 나누어졌음.

** 일반적으로 p-value가 0.10 이하이면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을 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Beamer Report (<표 2>참조)에 권장된 50%, AACSB⁷⁾ 정관에 규정된 50%, 그리고 본 연구에 의한 134개 대학 교과과정의 실증적 분석수치인 42.5%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이다(<표 3> 참조).

이 두 비율(30%와 42.5%)의 차이는 통계적 중요도 기준지수(significance level) 0.0001로 시작작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첫째 연구 명제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매우 흥미있는 것으로 1989년의 연구주장(이동수, 1989)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회계학과 학점 비율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② 회계학과 학점 비율(총 회계학과 학점수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표 4>에서 보듯이 총 회계학과 학점수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비율 분석에서 두 나라 표본들의 평균치를 보면 한국이 140학점 중 평균 28.5학점으로 20.4%, 미국이 125.7학점 중 평균 26.2학점으로 20.8%로서 이는 거의 같은 수치로 통계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아니다. 학점수 자체만을 본다면 28.5 대 26.2로서 한국의 회계학과 학점수가 오히려 더 높은 셈이다.

③ 회계학 분야별 학점 비율(회계학 분야별 학점 대 총 졸업소요학점수)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명제인 회계학 분야,

7) AACSB는 미국 상경대학의 자질과 권위를 인정해주는 단체인 미국상경대학연합회인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의 약자이다.

〈표 5〉 회계학과 분야별 학점비율 단변수 검증 통계결과(각 분야별 학점/총 졸업소요 학점수)*

변수 Variable	Korean schools (n=35)		The U. S. Schools (n=134)		T statistics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t-value	p-value**
재무 회계	0.021 0.107	0.069 0.026	0.023 0.139	0.072 0.023	0.707	0.4803
원가 회계	0.021 0.071	0.043 0.009	0.000 0.063	0.028 0.011	7.703	0.0001**
회계 감사	0.000 0.021	0.018 0.008	0.000 0.050	0.025 0.006	-4.88	0.0001**
세무 회계	0.000 0.064	0.019 0.014	0.000 0.053	0.028 0.010	-3.57	0.0009**
정보 시스템	0.000 0.043	0.009 0.012	0.000 0.047	0.017 0.012	-3.46	0.0007**
기타 과목	0.000 0.171	0.045 0.037	0.000 0.173	0.039 0.035	0.938	0.3494

* 모든 변수는 총 졸업소요학점수로 나누어졌음.

** 일반적으로 p-value가 0.10 이하이면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표 6〉 회계학과 분야별 학점비율 단변수 검증 통계결과(각 분야별 학점/총 회계학과 학점수)*

변수 Variable	Korean schools (n=35)		The U. S. Schools (n=134)		T statistics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평균치*** 표준편차	t-value	p-value**
재무 회계	0.111 0.571	0.338(9.6) 0.108	0.111 0.625	0.348(9.1) 0.101	0.521	0.6028
원가 회계	0.120 0.345	0.217(6.0) 0.054	0.000 0.286	0.134(3.5) 0.052	8.385	0.0001**
회계 감사	0.000 0.167	0.094(2.6) 0.008	0.000 0.250	0.121(3.1) 0.036	-3.28	0.0020**
세무 회계	0.000 0.064	0.094(2.7) 0.045	0.000 0.250	0.135(3.5) 0.047	-3.51	0.0010**
정보 시스템	0.000 0.222	0.045(1.3) 0.061	0.000 0.190	0.082(2.1) 0.058	-3.28	0.0012**
기타 과목	0.000 0.615	0.213(6.4) 0.146	0.000 0.054	0.179(4.9) 0.146	1.199	0.2320

* 모든 변수는 총 회계학과 학점수로 나누어졌음.

** 일반적으로 p-value가 0.10 이하이면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 비율과 함께 ()의 수치는 평균 학점수 자체를 나타냄.

학점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6개 분야, 즉 재무, 관리/원가, 회계감사, 세무, 정보시스템 및 기타과목별 분석을 해본다.⁸⁾ 앞의 <표 5>가 보여주듯이 재무회계와 기타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통계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 회계감사 분야에서 2.5% 대 1.8%(통계적 중요도 기준지수 0.0001), 재무회계 분야에서 2.8% 대 1.9%(통계적 중요도 기준지수 0.001)로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관리/원가회계 분야에서 4.3% 대 2.8%(통계적 중요도 기준지수 0.0001)의 높은 학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5> 참조).

또 다른 하나의 검증방법으로 앞에서 분석한 회계학 분야별 학점 대 총 졸업소요 학점수 비율 외에 회계학 분야별 학점 대 총 회계학과 학점수 비율을 앞의 <표 6>에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명제인 회계학 분야별 학점수 비중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분야별 비율과 더불어 평균 학점수를 비율 옆의 괄호 속에 제시한다(<표 6> 참조).

2) 기타 요소

① 교수진(faculty)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986년에는 100 : 1이었으며 1989년 현재 69 : 1을 나타내고 있다. 1990학년도 현재 3,961명의 회계학과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학생수의 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달리 교육의 최우선 국가정책의 덕택에 한국은 자격을 갖춘 교수의 수가 수요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69 : 1(남상우, 1990)의 학생 대 교수 비율은 미국의 37 : 1(Digest of

Education, 1991)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② 회계관련 기구(accounting institutes)

한국에는 두 개의 회계관련 기구로서 한국회계학회(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 KAA)와 한국공인회계사회(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KICPA)가 있다. 한국회계학회는 미국회계학회(AAA)와 같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회계학회는 미국회계학회(AAA)와 같이 1981년에 회계학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자원으로 구성된 사설단체이다. 그러나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는 달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부 산하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재무부 산하 법인단체이다. 그 설립목적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 4167호 제13조 2항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에 직접적 책임은 지고 있지 않으나, 재무부와 유대관계 아래 참여하고 있다.

③ 회계의 문화적 요소(cultural factor in accounting)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도 외국 회계법인들의 국내진출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거나 외국 회계법인의 한국채류 회계사수를 제한하는 등의 상당히 경직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가 국내 회계실무를 보호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데 저항감을 고조시킨다고 미국의 6

8) 이 6개 분야 분류는 Beamer Report를 기준으로 했다. 재무회계는 회계이론과 중급회계를 포함하며, 기타는 고급을 포함한 5개 분야 외의 과목을 포함한다.

대 회계법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고객회사의 총 자산액에 근거하는 아주 적은 액수의 정부 주도의 강제적 회계감사비 책정구조 아래에서는 양질의 회계감사보고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89년 현재 한 회사당 평균 일반 회계감사비는 미화 10,000달러 정도이며 공인회계사 한 명당 1년 수입이 미화 15,000달러 정도다. 이는 한국의 18,000명 공인회계사 일인당 1.5개의 회사를 감사하는 수치인 것이다 (Friedland, 1989).

회계직종 분야로부터의 직접적 불평 외에도 회계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회계감사 필요악으로서 회계감사가 부가가치를 더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회계감사비를 줄일 수 있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한국은 거의 외부 회계감사가 그의 실수에 대해서(나중에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계정에 걸린 실수) 혹은 회사실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상대로 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적 소송은 거의 없는 사회로서의 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산회사의 운영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Friedland, 1989).

6. 결론 및 제안

경제사회가 더욱 상호연관적이고 상호의존적이 됨에 따라 회계사가 보고하려는 경제현상들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회계는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산물인 것이다. 효과적인 회계체제는 그 체제를 설계, 설치, 사용, 관리, 유지하도록 훈련된 인력에 달려있으므로 훌륭한 회계학 교육체제는 그 나라 경제

성패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회계학 교육체제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의 회계학 교육체제를 재고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실증적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회계학 교육의 국제적 변화에 조화할 수 있는 방향 설정

통계적 결과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대학들이 미국보다 더 적은 일반 교양과목 학점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이 오히려 기술적 회계과목보다는 일반 교양과목을 더 필요로 할지도 모를 것은 물론, 통계적 결과를 떠나서라도 앞에서 거론했듯이 지금 미국의 회계학교육이 '좁은 기술과목 위주에서 보다 일반적인 전인교육으로의 일대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때에 우리도 그 국제화 흐름에 동참하는 회계학 교육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1989년의 한 연구(이동수) 주장과는 대조적인 이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흥미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회계학 교육체제 입안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 회계학과 분야별 비중전환, 특히 회계 감사 분야의 증시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 대학들이 미국 대학들보다 관리/원가회계과목 학점수가 더 높은 반면 미국은 회계감사, 세무회계, 정보시스템분야의 학점수가 더 높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의 회계학 교과과정 구조의 회계학 분야별 비중 책정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특히 외부보고 회계와 국제회계 분야에서, 앞에서 토의된 바와 같이, 회계감사 환경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 국제적인 회계실무상

의 차이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어떤 대학들은 회계감사나 정보시스템 과목이 교과 과정에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⁹⁾ 그러므로 이들 분야에 교과목이 설치되도록 교과과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수진의 양적 질적 개발 및 교육환경의 향상

교수 대 학생 비율은 최근 정부의 대학에 대한 교수 대 학생 비율 증가 요구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점은 물론 예산 등의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대학들 스스로가 자진해서 컴퓨터, 오버헤드프로젝터, VCR 등의 강의기재를 구비한 강의실과 실험실 등의 설비투자과 충분한 수의 교수진을 임용하며 더욱 개선된 교과과정 개발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회계관련기관의 회계학 교육체제 발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 능동적인 주도

또 한편으로 미국과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부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에 현저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을 감안해서 한국회계학회가 국내적 필요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통일 회계기준개발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도 회계학 프로그램 및 회계학 교과과정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회계학회에 회계학의 강의, 실무 그리고 학습의 발전에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회계학연구 분야에 더욱 활발하게 참

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교육계가 최근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교수고과제도 도입을 고려함에 따라 대학교육계의 활발한 연구활동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5) 회계학 교육의 국제적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제안들 못지 않게 또한 중요한 변화가 한국 회계학 교육 및 실무 발전에 요구되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을 본래 그 기반을 두었던 미국의 일반회계기준에 더욱 가까이 접근시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정부가 회계 및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분야의 정부주도형 회계감사비 책정방법과 과잉 보호주의 문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물론 회계적 분야 모두가 회계감사 자체를 '필요악'으로 보는 우리의 기업문화와, 투자자들이 외부 회계감사가 그들의 오류에 대해 법적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산기업의 운영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투자자들의 잘못된 인식구조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회계실무 및 회계감사의 사회적 환경, 경영자, 외부 회계감사자, 회계정보 이용자, 그리고 회계관련기구의 입지적 조건 등이 각국의 경제체제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국제회계 사회에 어려운 도전을 제시하긴 하지만, 이들 난제가 각국의 회계학 교육 및 실무를 잘 이해함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9)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개재할 수 없지만, 순수한 연구목적상의 자료요청은 언제나 제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남상우, “회계학과의 문제점과 개선책”, 『대학교육』, 제47호, pp. 100~106, 1990.
- 한국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67호, 1990년 4월 6일 개정.
- 이동수, “회계학교육의 발전방향”, 『대학교육』, 제11호, pp. 104~110, 1984.
- 이학열, “우리나라 회계학 교육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pp. 159~179, 1989.
- 재무부령 제1827호, 한국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1990년 6월 21일 개정.
- 한국교육법시행령, 1977년 7월 2일 개정.
- Agami, A. M. and Y. A. Alkafaji(1987), “Accounting Education in Selected Middle Easter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Fall) : 146-168.
- Anonymous(1989), “South Korea’s Miracle”, *The Economist*(March 4) : 77-78.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the Future, Structure, Content and Scope of Accounting Education(The Bedford Committee (1986), “Future Accounting Education : Preparing for the Expanding Profess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spring) : 168-195.
- Campbell D. R.(1987), “The first CPA Review Manual”, *Journal of Accountancy*(May) : 333-336.
-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1991),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 : 204-221.
- Ernst & Young(1992), “Update on Developments in Accounting Education”, *Ernst & Young*(October) : 1-25.
- Friedland, J.(1989), “Accountancy—A Call to Accoun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70-75.
- Kohler’s Dictionary for Accountants(6th edition), 1983.
- Langenderfer, H. Q.(1987), “Accounting Education’s History—A 100 year Search for Identity”, *Journal of Accountancy*(May) : 302-331.
- Mueller, G. G. and J. K. Simmons(1989), “Change in Accounting Educa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Fall) : 247-251.
- Peavey, D. E. and S. K. Webster(1990), “Is GAAP the Gap to International Markets?”, *Management Accounting*(August) : 31-35.
- Roy, R. H. and J. H. MacNeill(1967), *Horizons for a Profession*, New York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최영찬/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드렉셀 대학에서 회계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공인회계사이자 세인트존스 대학 회계학과 교수이며, 현재는 나이가가라 대학에서 1년간 회계학과 객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는 “Corporate Lobbying Strategy and Pension Accounting Deliberation : An Empirical Analysis”외 다수가 있다.